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 2023. 9. 20(수) 14:00, 정부서울청사 -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1일부터 나흘간 실시된 을지연습에 대한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연습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 공공기관 외에도 국민들께서도 직접 훈련에 참여하셨습니다. 을지연습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과,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있고, 핵·미사일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전, 심리전 등 도발의 양상도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습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공격, 드론 테러 등 다양한 도발 양상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고, 정부연습과 한·미 군사연습을 연계함으로써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한 점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북핵 대응훈련을 더욱 발전시키고, 드론·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참여 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행동요령 안내와 소통 노력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평회의가 이번 을지연습 과정과 결과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연습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을지연습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